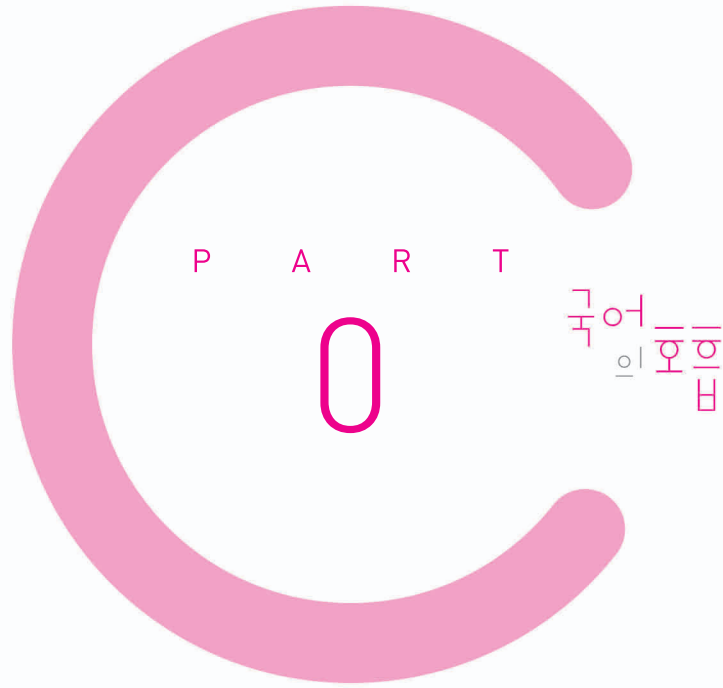


C O N T E N T S

Part 0	서론 :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9
Part 1	현대시의 원리	15
Step 0	문학론	16
Step 1	상상하기	19
Step 2	현실과 이상의 괴리	33
Step 3	자아와 세계	79
Step 4	대상 치환하기	110
Step 5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법	136
Part 2	현대 문학의 주제별 탐구	153
I.	성찰	154
II.	현대 물질문명	169
III.	고향	181
IV.	소시민과 서민	197
V.	인간 본질적 한계	212
Part 3	현대 소설 적용 - 독해법	223
Part 4	실전 풀이	265



서론 :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PART 0. 서론 :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단순히 여러 작품을 접하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느는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양치기가 되지 않는 것이 국어이며, 그중에서도 문학이 단연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나오는 소위 ‘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능에서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으로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도박일 테니까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서는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그 기준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책을 통해 표준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그 전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독해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경지에 오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독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문제 풀 때 정답 선지가 바로 보인다 → 문제 풀이 시간 ↓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경우 독해 시간이 주로 문제로 꼽히는데, 장면 별로 독해가 가능해지면 문단마다 핵심 키워드만을 추출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소설류도 4-5분 내 풀이 가능

이 모든 방법의 근간은 **“문학 작품을 읽고 ‘단 한 줄’로 요약해내는 것”**이며, 그러한 요약이 가능해지기까지 필요한 단계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Step 1, 4가 준비 단계, 나머지는 실전에서 적용하는 것이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 평가원의 정답 선지는 ‘반드시’ 주제로부터 나온다

이는 독서와 문학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분야 모두 한 줄로 요약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약한 내용에 주제가 온전히 담기면 그 한 문장으로도 문제가 모두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 작품의 출제 Point는 그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어 이 작품이 수능에 나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작품의 고유성을 알려주는 문학사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인이 찾아낸 독창적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의미상일 수도, 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지문이 이번 시험에 나왔는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지문의 Best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학사적 의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야 오류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원의 정답 선지는 굵직한 문학사적 의의에서 출제된다는 걸 독해 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특이점, 문학사적 의의인지 앞으로 찬찬히 봐봅시다. 그 전에 추상적으로 들렸을 이러한 얘기를 비교적 최근인 23 수능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번 위력을 봐볼까요?

23 수능의 (나) 작품인 <음지의 꽃 _ 나희덕>입니다.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 [A]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 [B]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 [C]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 ... [D]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 [E]

덧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F]

참나무는 썩지만, 그 참나무를 영양 삼아 새로운 생명인 버섯(음지의 꽃)이 피어나는, 자연이 보여주는 순환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참나무의 죽음, 역설적으로 버섯의 생명을 이끌어오는 모순적인 순환이며 이것이 바로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찌 나왔을까요.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 ②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 ④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 ⑥ 표현하고 있다.
- ⑦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 ⑧ 강조하고 있다.
- ⑨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 ⑩ 부각하고 있다.

주제가 뭐였죠? _ ‘참나무의 죽음으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자연의 순환적 아름다움’
→ ①이 손을 내밀고 있군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33. [A] ~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 ②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 ④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 ⑥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⑦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 ⑧ 바람이 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⑨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 ⑩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주제를 외쳐볼까요?

‘참나무의 죽음으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자연의 순환적 아름다움’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완벽하게 ②번 선지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그냥 정답이 보여요.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만으로 편집함]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①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나)의 ‘흙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보기>와 기존에 우리가 찾은 주제를 합쳐서 보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죽은 참나무로부터 새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강인한 생명력’
(인간에 대한 비판과 자연에 대한 예찬)

→ ③ :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는 인간이고 ‘홀씨’는 자연이므로 비판과 예찬이 섞임 (X)

방금 보신 것처럼 잘 요약한 한 문장은 모든 문제의 정답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정답 선지는 주제에서 나온다는 평가원의 출제 원리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모든 평가원 지문과 수능 문제에서 이를 벗어났던 적은 없고, 수능 국어인 이상 이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정 지문에서 최선의 문제를 내려면 저 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한 줄로 잘 요약하기 위해서는 시 내용을 주제만 쓱쓱 알아내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컴팩트하게 핵심만 챙기려면, 역설적으로도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COMPACT>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세히 해본 사람만이 저게 가능하며, 수능에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rt 1을 통해 아주 세세히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독해력이 좋아서 Part 2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art 1을 했다고 전제하고 서술했기도 하고, 절대적으로는 독해력이 좋은 편이지만 제가 원하는 독해력의 수준에는 못 미쳐 괴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Part 1은 혼자서 해야 하는 분석을 여러 질문들을 통해 저와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rt 1에서 하는 것들은 문학의 기본이자, 문학에 대한 안목을 높여줄 여러 장치들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제가 해설에서 제시해가는 내용들에 의문을 가지고,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보는 작업을 거쳐주시면 좋을 거예요!

STEP 1. 상상하기

말 그대로입니다. 시의 장면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읽는 독해 태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를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 장면으로 꽃이 시드는 걸 보면, 왓지 주인공 커플에게 시련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이, 시를 장면으로 보게 되면 의미해석이 쉽습니다. 얼마나 시의 텍스트를 사실처럼 잘 구현하는가.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PD의 마음을 갖고 콘티를 쓰시는 겁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님의 침묵」에서 한 것처럼 장면으로 구현하며 연습해봅시다.

Practice of Imagine _ (제목과 내용을 읽은 후, 화살표 옆에 자신의 상상과 해석을 써보세요)

1)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_ 2008.09. 박용래, 「월훈」

(첫 문제이니 풀고 해설 본 후,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여 다음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

2)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진짜 돌무덤이라는 물리적 장소로 간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쓰시오) _ 2009.06 백석, 「여승」

→

3)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_ 2009.06 나희덕, 「못 위의 잠」

→

4)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_ 2011.06 이성복, 「서해」

(화자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함을 전제하고 쓰시오)

→

이제 직접 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각 <보기>만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작전을 짜보세요.

Question of <보기> 독해

1.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다.

→ [작전]:

2. (중략)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작전]:

3.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 했고, (중략)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다.

→ [작전]:

4.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후략)

→ [작전]:

5.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와 (나)에 대한 <보기>

→ [작전]:

STEP 3. 자아와 세계

Step 1 상상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Step 2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는 시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Step 2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시인이 어떻게 시 속에 녹여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이전에 기출에 있는 **자아와 세계**와 관련된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이하 생략)

(가) 지문에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을 대상에 투영해서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면, 대표적으로 감정 이입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지저귀고 있는 접동새를 보고 자신의 슬픈 감정 울고 있는 감정을 대입하여 새가 울고 있다고 표현하죠. 자기 내면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대상에 투영’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아래의 시를 읽어봅시다. 화자의 입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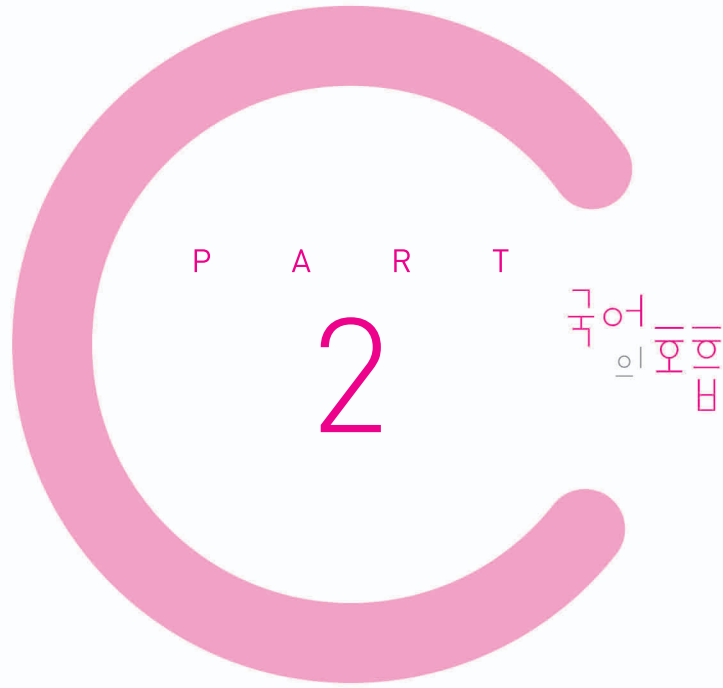
ex1 13 09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떼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이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을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P A R T
2
국어의 흐름

현대 문학의
주제별 탐구

Part 2에서는 Part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 문학에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Part 1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Part 2에서는 여러 주제 즉, 클리셰들을 세세히 뜯어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Part 1을 숙지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성찰

현대시, 현대소설과 같은 문학 갈래는 이전의 다른 문학에 비해 아주 강력하게 '내면'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성찰'은 그 점에서 현대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찰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결국 '현재 자신의 내면' / '과거의 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내면은 한 개인의 '이상'을 만들어내고,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괴리]**를 찾아내는 주체입니다. 성찰은 그러한 괴리를 찾으려는 과정이며, 자아에게 책임을 묻거나 해결책을 찾으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시와 같이 봅시다.

재수생 A : '아, 작년 수능 전에 게임만 안 했어도 잘 봤을 텐데, 그때 왜 게임을 했지?
난 자제력이 약한 편인가봐. 하...'

자신의 과거 내면 - 수능 때 게임을하기로 선택한 자아
과거의 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 - 게임으로 인해 수능을 망침
현재의 내면 - 과거를 후회하며, 의문을 통해 자신의 자제력을 판단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자아는 성숙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성찰을 한다고 무조건 해결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반성'이 있으나, 둘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반성은 성찰의 일종입니다. 반성이란 자기 언행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켜보는 일이므로, 잘못을 고치는 것에 치중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찰 중에서도 '반성'은 자아가 성장하기 좋은 성찰인 겁니다. 특히 현대시의 특성상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 자신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외부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을 하면 자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외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체념과 극복은 평가원 선지에서 갈래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찰과 반성은 극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아가 문제 상황 즉,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마주하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두 가지입니다. **[체념] & [극복]**

[체념]은 성찰을 해보아도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을 때나 문제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극복]은 성찰을 해본 결과 해결책이 나왔고 자신이 그걸 행할 능력 또한 충족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찰을 해본 결과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체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자아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현대시에서는 극복만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외부 상황에 억압을 당할 때만 체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문항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찰 대표 문항

(가)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Quiz 1. 성찰이 드러난 곳을 찾고, 성찰의
내용을 적어보자.

Quiz 1-1. 동굴의 역할과 효과는?

Quiz 2. 2연과 5연의 성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조적,
의미적으로 적어보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PART 3. 현대 소설 적용 - 독해법

현대 소설이 고전 소설과 비교해서 가지는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고전 소설은 어디까지 재미있으려고 쓰인 아침 드라마 같은 갈래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로 얽히면 사건 사고가 벌어지죠. 이때 현대와는 다른 클리셰들이 있기에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옛날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소설은 비교적 최근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사건 사고를 그리기보다는 특정한 개인의 내면에 더욱 집중합니다. 등장인물이 4명을 채 넘지 못한다는 걸 여러 기출들로부터 이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시처럼 현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아와 세계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적으로부터 내면을 알아내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나 기억들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왜 가지는지, 현재의 감정상태는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우리는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통념과 배치되거나, 감정, 주관적인 부분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바로 자아와 세계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소설류는 독해 시간이 운문에 비해 훨씬 긴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 독해 시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그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시를 배우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제시하는 독해 방법은 바로 장면에 대한 요약입니다. 일전에 현대시를 읽을 때 웹소설을 드라마화하는 PD의 마음을 가지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소설을 읽을 때에는 거꾸로 길게 늘어진 말들을 콘티로 바꿔야 하는 PD와 같이 일하는 작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구장창 주저리 주저리하고 있어도 아 결국 우울하다는 거네? 하고 크게 토막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면을 적절하게 나누고 그에 대해 요약을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중요한 자아와 세계가 드러나는 문장들만 체크하면 현대 소설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고전 소설은 외적인 사건 사고가 더 주를 이루는 반면, 현대 소설은 내적 심상에 더욱 주목하기에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2022학년도 수능 기출인 현대 소설을 푸는 걸 실제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장황하게 서술된 현대 소설은 이미 현대시라는 압축본을 견딘 여러분들에게는 과하게 친절하게 느껴질 겁니다!